증권 다이제스트

SK증권

14일까지 ELS·ELB 공모

SK증권은 오는 14일까지 나흘간 주가연계증권(ELS) 1종 및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

'제2526회 ELS'는 코스피200(KOSPI200) 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 지수 및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5년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세 기초자산이 매 6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초기준가격의 90% (6·12·18개월), 85%(24·30개월), 80%(36개월) 이상이면 연 6.60%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연 6.60% 수익을 지급하며, 세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지수의 6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손엄지 기자

현대차증권

1500억 규모 DLS 2종

현대차증권은 오는 12일부터 14일 오후 1시까지 총 1500억원 규모의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2종을 공모한다. '현대차증권 DLS 81호'는 원유를 대표하는 지표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Bren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발행 후 6개월 마다 조기 상환기회가 주어지며 최고 연 7.0%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번 공모상품은 금융투자상품 분리에 따라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현대차증권 전국 각 지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손엄지 기자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자문회사의 감사업무와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

금감원은 증권·선물회사의 내부감사협의제도 운영결과를 공유하고, 자산운용회사 운영위험평가와 자체감사 결과 등을 안내했다. 또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선제적 리스크관리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최근 금감원의 검사결과 지적사례도 공유했다. /안상미 기자

KRX 등 증권기관 모험자본 '역대 최대'

한국거래소 12개기업 코스닥 상장
금융투자협회 시총 14.6조 넘어서
예탁원 올 펀딩성공률 65% 달해

〈증권시장 모험자본 공급 역할과 성과〉

구분	KRX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KSD
	코넥스	K-OTC	크라우드펀딩
역할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설된 초기·중소기업전용 신시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플랫폼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올해 성과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12개사	시가총액 15조원 돌파 (10일 기준 14조6237억원)	펀딩 성공률 67% 달성

정부의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국내 증권시장 유관기관이 독자적인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코넥스, 금융투자협회는 장외주식시장(K-OTC)을 운용하고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증권발행과 예탁, 투자자 명부관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들 시장은 올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쓰면서 모험자본공급의 산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에선 시장이 커진 만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역대 최대 기록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은 12개로 나타났다. 이는 코넥스 시장이 2013년 7월 신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주식시장의 인큐베이터를 목표로 설립된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대 기록이다.

2013년 이후 총 44곳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는데 이 중 27%가 올해 이뤄진 것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는 국내 유일 제도권의 비상장 주식시장으로 시장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현재 127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고, 이날 기준 시가총액은 14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불과 2년 만에 시총은 46% 이상 늘었다. 이뿐만 아니라 9월 말 기준 K-OTC 활동계좌 수는 약 4만3000개로 지난해보다 38.6% 증가했고, 일평균 신규계좌 수는 119% 늘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역시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405개사, 728억원의 펀딩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펀딩성공률은 2016년 46%에서 2017년 62%, 올해는 65%로 높아지는 추세다.

◆ 개인투자자 비중 '압도적'…보호장치 필요

이처럼 모험자본이 활성화된 데는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도 역할을 했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통해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할 경우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는데 이어 안정성 심사를 추가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 코넥스 시장의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데 이어 투자 경험 및 위험 감수능력 등에 따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K-OTC는 올해부터 소액주주 거래 시 양도세(10%) 면제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평가다. 한재영 K-OTC 부장은 "양도세가 없어지면서 주주들의 요구로 좋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는 만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코넥스 시장은 80% 이상이 개인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또 크라우드 펀딩은 전체 94%가 일반투자자다. K-OTC 역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다.

반면 크라우드 펀딩의 성공률은 70%에 가깝지만 여전히 30% 이상의 펀딩은 실패한다. K-OTC는 11월 한 달 동안 40% 이상 하락한 종목이 9개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정책과 동시에 동시에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고 조언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교보생명, IPO 추진… 새 회계기준·K-ICS 대비 자본확충

'빅3' 마지막… 내년 하반기 목표
신 회장 경영 '발등의 불' 일단락

교보생명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주식시장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교보생명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 이는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6번째, '빅3' 생보사 가운데서는 삼성·한화생명 이후 마지막 상장이다.

교보생명이 밝힌 상장 배경은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자본확충이다. 수 조 원의 자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교보생명이 IPO 추진을 결정한 배경은 재무적투자자(FI)의 풋옵션(지분을 일정한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를 막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1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자본확충을 위한 IPO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사회에서 IPO를 포함한 증자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뒤 이달 IPO추진을 공식화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새롭게 도입되는 IFRS17,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자본확충을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라며 "새로운 제도 변화에 대비하려면 수 조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현재 총자산 107조원이 넘고 지난 9월 기준 RBC(지급여력비율)는 292%(기준치 100%)에 이르지만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과 이에 맞춰 보험금 지급 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K-ICS가 도입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자본을 쌓아둬야 한다.

이번 IPO 추진 결정을 놓고 FI '달래기'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현재 교보생명은 지난달 말 FI들이 보유한 지분 24%에 대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앞서 2012년 FI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사면서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사도록 하는 풋옵션을 받았다. 그런데 약속한 시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FI는 보고서에서 지분 24%의 가치로 약 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합쳐 6월 말 기준 36.91%(신 회장 지분 33.8%)로 주식 매각을 통해 자금 마련이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이라 매각이 쉽지 않다. 교보생명 주식(33.78%)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유일하지만 2조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희주 기자 hj89@

부작용 없는 항암치료 목표 '파이프라인 개발' 박차

IPO 간담회

유틸렉스

면역항암제 개발 기업 유틸렉스가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유틸렉스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3만8000원~5만원)를 확정하고 13, 14일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은 오는 24일 예정이다.

2015년 설립된 유틸렉스는 획기적인 면역항암치료를 통해 부작용 없이 암을 완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기업이다. 면역항암의 세계적 권위자, 권병세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면역항암 전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권병세 대표는 미국 인디아나 의대의 종신교수로 재직하던 1989년 당시 4-1BB 발견을 시작으로 다수의 면역관문활성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발굴했다. 이들은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킬러 T세포의 항암작용을 극대화하는 물질이다. 권병세 대표가 발굴한 물질들은 2018년 노벨상 수상자들의 영역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재 유틸렉스는 ▲항체치료제 ▲유틸렉스 T세포치료제 ▲CAR-T세포치료제 등 세 분야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항체치료제의 대표 파이프라인으로는 EU101, EU102, EU900 등이 있으며, T세포치료제는 앱비앤티(EBViNT), 터티앤티(TERTiNT), 위티앤티(WTiNT)를 집중 개발 중이다.

먼저 항체치료제는 킬러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수용체(4-1BB), 조절 T세포를 도움 T세포로 전환시키는 수용체(AITR) 등을 자극해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 항체치료제 주요 파이프라인인 EU101은 2017년 중국 절강화해제약과 10개 적응증에 대해 총 3550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권 대표는 "상장후 면역항암제 시장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는 2015년 19조원에서 연평균 23.9%씩 성장해 2022년 8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유틸렉스의 영업손실은 92억230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극적인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 2020년부터는 흑자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권병세 유틸렉스 대표.

유틸렉스는 총 72만 7000주(신주모집)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되는 약 364억원(공모가 최상단 기준)의 자금은 글로벌 임상에 주로 사용될 계획이다. /손엄지 기자